

# 세상의 중심에서 의료활동 펼치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직**업이란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의 삶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윤택하게 하기 위한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같은 목적일 수 있는 이 직업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 나누어 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병들어 지친 사람들을 돌보는 직업을 가진 의사들이, 자신이 배우고 습득한 지식과 열정으로, 사회의 어려운 계층에 따사로운 의료봉사의 손길을 뻗고 있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이름 그대로 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서 인도주의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이다.

인의협은 지난 87년 대학시절부터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의사 170여명이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게 따뜻한 의료봉사를 펼치고 사회적인 중대 이슈에 전문가로서의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고자 모인 단체로 98년 현재 전국적으로 1200여명의 의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의협은 창립 후 당시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했던 원진레이온 근로자들의 직업병 발생 문제에 참여, 전문가적인 조사로 우리 나라에 직업병이란 말과 산업의학의 분야를 만들어내면서 사회에 알려졌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는 직업병이란 개념이 없었고 이에 따라 산업장에서 병을 얻어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가 있어도 별다른 대책 없이 처리되곤 했다. 이런 와중에 인의협이 원진레이온 사건을 통해 직업병의 개념을 등장시킨 것은 의료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이었다.

이후 인의협은 상봉동 주민들의 진폐증과 인근 연탄공장과의 관계를 조사,

환경이 일반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밝힘으로써 사회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의료단체로 알려졌다.

인의협은 90년대 들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눈길을 돌렸다. 급변하는 세계화로 우리 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됐을 때는 의료보험하나 제대로 없는 이들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또 소년소녀 가장에게 주치의의 연결해주는 요 보호아동 주치의 맺기 운동도 펼쳐 현재 서울시 전지역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나라 전체가 어려운 시기를 맞은 최근, 인의협은 더욱 바빠졌다. 사회가 어려운 만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이 많아졌기 때문. 그 중에서도 97년 말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한 실직자와 노숙자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인의협은 98년의 중점사업을 실직자와 노숙자들의 건강문제에 두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건강이 점점 외면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인의협은 지난 봄부터 을지로입구 지하보도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노숙자들에게 무료 진료활동을 하고 있다.

### ▼ 을지로2가 지하보도에서 실시하는 노숙자무료진료활동



▲ 주요사업의 방향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학술대회



# 마주잡는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 인도주의 실천주간 : 11월 20일 ~ 11월 29일

주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TEL 02-362-0377, FAX 362-0378)

- ▶ 실직자 진료비 감면지원, 전국 내트워킹 사업(전국)
- ▶ 영세어린이 주치의 및어주기 활동 (서울)
- ▶ 노숙자 진료 의료대학생 세미나 (11월 25일)
- ▶ 노숙자 진료(서울, 대구경북, 부산경남)
- ▶ 광희동 노점상 진료(11월 21일)
- ▶ 노숙자 진료 의료대학생 세미나 (11월 25일)
- ▶ 오보호이동 건강관리 사업(서울, 경기)
- ▶ 역삼역과 IMF시대 실직자·노숙자·오보호이동의 건강문제와 대책
- ▶ 보건의료인 연대 활동
- ▶ 의료계학과 임직병원, 대학 활동 (전국)
- ▶ 11월 28일(토) 오후 6시 장소: 연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 ▶ 건강경본사업

인의협 회원들과 서울지역 다섯 개 진료소(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학생들의 참여로 지난 4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노숙자 무료진료활동은 처음에 꺼려하던 노숙자들의 태도가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 최근에는 하루 80여명의 노숙자가 진료를 받고있다.

인의협은 최근 이 노숙자 무료진료를 좀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고자 제약업체, 타 의료기관단체와 함께 의료봉사단을 구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노숙자 무료진료와 함께 인의협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실직자들의 진료비 감면 사업이다. 이 사업 또한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의 의료원 250개소가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인의협과 연계된 이들 의료원에서는 실직자들에게 50%의 의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다. 아직 전체병원까지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인의협은 실직자 문제가 단기적인 사회문제가 아닌 만큼 이들의 건강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인의협은 지난 11월20일부터 29일

까지를 가을 인도주의실천주간으로 정했다. 늘 의사로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려는 인의협회원들이지만 이 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이웃을 생각하려는 마음을 갖고자 봄가을 두 번의 실천기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9일 인의협이 일부분 참여한 북한어린이살리기 의약품지원사업 또한 순조로운 진행으로 3차 의약품이 북한으로 보내지기도 했다.

앞으로 경제가 호전되고 세인들의 입에 IMF라는 단어가 옛말로 오르내릴 때면 인의협의 중점사업은 실직자 노숙자들의 문제에서 또 다른 길로 접어들 것이다.

아직 그 문제가, 그 봉사가 무엇일지는 모르지만 사회의 소외된 어느곳에 의료적인 이슈가 발생한다면 인의협은 또 그 중심 어딘가에서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있을 것이다. 지금 그들이 의료인으로서 사회의 한 중앙에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72**

<글·한연수(자유기고가)>



▲ 공단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료봉사

### <안내> 인의협이 펼치는 실직자 의료비감면사업

실직자는 이 사업에 동참하는 전국 250개 의료원에서 의료비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1. 인의협 및 타단체에서 발급한 '실직여성을 위한 건강검진카드' 소지자
2. 구청,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구직표 소지자
3. 인의협에서 확인하여 발급하게 될 '건강상당카드' 소지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 3147-1490나 인의협(362-0377)으로 문의하세요